

초월성의 기호학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읽기

송효섭

1. 흰빛 혹은 상징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¹⁾는 그 자신의 음악을 가리켜 “온갖 빛깔을 담은 흰빛의 음악”이라 했다. 그 음악의 흰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삼국유사』를 읽으며, 필자는 패르트의 음악을 생각했다. 『삼국유사』는 다양한 색깔을 담은 설화 텍스트들이 직조되어 형성된 텍스트지만, 그것은 또한 흰빛의 단순함을 갖고 있다. 『삼국유사』를 관류하는 그 흰빛이 『삼국유사』를 『삼국유사』답게 한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글은 『삼국유사』를 지배하는 어떤 초월적 기호가 있으며, 그것이 강한 힘을 발휘하며, 『삼국유사』 텍스트의 의미 생성에 관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필자의 이러한 느낌의 체험은 하나의 가설로서 가추법적 추론의 출발이 된다. 이 글은 『삼국유사』 텍스트 읽기를 통해 그러한 가설을 증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삼국유사』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조적으로 읽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선조성을 깨뜨리면서 읽는 방법이다. 『삼국유사』는 각각의 단위들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현해가는 텍스트라

는 점에서 굳이 선조적 읽기의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다시 말해 『삼국유사』는 어떤 편부터 읽든 혹은 그 중 어느 조부터 읽든 아무 상관이 없는 텍스트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읽기는 선조적 읽기와는 다른 기호학적 의미를 갖는다. 소쉬르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이는 계기적 읽기라기보다는 병렬적 읽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때, 『삼국유사』 중 어느 한 텍스트에 대한 읽기는 그것과 병렬적인 다른 텍스트에 대한 읽기를 유도한다. 그러나 그 병렬체 속의 단위들은 단순한 반복이나 복제가 아니다. 가령, 어느 한 텍스트에서 기호는 그것과 같은 병렬체에 속하는 다른 기호를 『삼국유사』의 다른 텍스트 속에서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이다. 그것은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텍스트에서 실현됨으로써 다른 기호학적 의미를 구현한다. 그에 대한 해석은 텍스트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선조성을 깨뜨린다는 뜻은 『삼국유사』의 어느 텍스트도 『삼국유사』 읽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며, 이러한 출발점에서부터 기호학적 의미 생성은 마치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확산되어가는 기호계의 역동적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삼국유사』 텍스트에 이러한 기호계가 있다면, 그리고 구심력을 지닌 중심이 존재하고 그 중심이 어떤 힘을 가지고 역동적인 기호들의 활동을 지배한다면, 바로 그 중심은 무엇일까. 그 중심은 바로 모든 빛깔을 함축한 파르트의 흰빛과도 같은 것은 아닐까. 이 글에서 필자는 모든 빛깔에 대해 ‘초월적인’ 흰빛의 기호가 『삼국유사』 텍스트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기술하려 한다. 이는 상징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또한 상징이 생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상징은 퍼스가 말한 상징 기호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퍼스는 상징 기호를 그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을 그 법칙에 의해 나타낼 때의 그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라고 말한다.¹⁾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 퍼스가

1)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ed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 143~44.

말한 상징 기호에 부합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는 보다 인류학적 맥락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가령 인류학자가 어떤 문화 속의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그 사회적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때,²⁾ 그것은 인간 삶의 맥락에서 서로 관계 맺는 어떤 상징들의 망을 연상하게 한다. 인류학자들의 목적은 인간의 언어나 행위에 나타난 그러한 관계망들을 기술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담론의 망을 확충해가는 것이다.³⁾ 이때의 담론은 물론 해석의 담론이며, 이는 해석자와 텍스트가 공유하는 약호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퍼스가 말한 상징 기호를 포함한다. 이 글이 『삼국유사』 텍스트에 대한 해석 담론이며, 그 해석 담론이 어떤 약호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은 곧 상징 기호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담론에서 기술된 상징 기호들은 또한 그 자체로 다양한 기호 작용들을 포괄한다. 『삼국유사』의 해석 담론은 이러한 기호들 간에 이루어지는 메타적 기호 작용을 기술한다. 가령, 『삼국유사』에서 지표 기호나 도상 기호의 활동을 기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호 작용을 둘러싼 하나의 틀을 상정할 수 있고, 그러한 틀이 갖는 관습적인 영향을 통해 그러한 기호 작용이 가능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 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호 활동을 제약하는 관습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상징 기호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 글은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대한 분석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그러나 분석이 「가락국기」에 그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둘러싼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어떤 틀이 있어 이들 간에 어떤 의미의 제약을 가하는 상호 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호 작용의 역동적 양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하나의 텍스트는 그것을 둘러싼 텍스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통해 그 둘러싼 텍스트의 약호를 기술할 수

2) Raymond Firth, *Symbols: Public and Priv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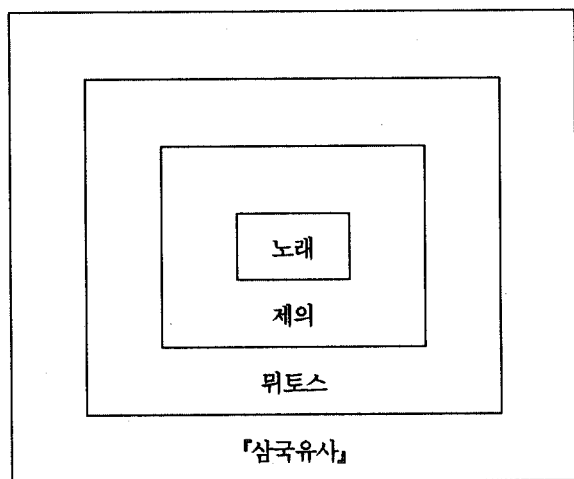
3)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 14.

있다. 이는 코호가 말한 발생과 메타 발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⁴⁾ 어떤 텍스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텍스트로부터 역으로 추정된 해석의 결과다. 마찬가지로 「가락국기」를 둘러싼 텍스트는 「가락국기」의 의미를 결정하지만, 그것은 결국 「가락국기」로부터 해석해낸 것이다. 그 해석은 어떤 형이상학적 관념으로의 환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상징의 언어를 기술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통해 추상적인 것을 기술하고자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과 추상적인 것 역시 어떤 해석의 언어로 존재함으로써, 또 하나의 보이는 것 혹은 구체적인 것이 된다.

「가락국기」는 가락국의 역사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뫼토스로 존재한다. 이는 역설처럼 보인다. 뫼토스가 과거에서 현재로 그 힘을 미친다면, 역사는 현재에서 과거로 그 힘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락국기」의 이러한 면모는 「가락국기」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기호 작용의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드러난다. 「가락국기」는 신념 혹은 이데올로기의 바탕에 존재하며, 그것을 지향하는 힘을 지닌 메시지다. 그것은 『삼국유사』의 「기이」 편 속에 존재하면서, 「기이」 편이 형성하는 의미에 기여한다. 아울러 그것은 『삼국유사』 전체의 의미 작용에 관여하기도 한다. 그것은 「가락국기」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가락국기」는 또한 그 안에 제의의 담론을 포함한다.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의 출생이나 쟁투, 결혼에 관한 기록은 격식화된 틀 속의 행위를 드러내는 제의적 담론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담론은 「가락국기」 전체 담론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는 그 제약을 「가락국기」가 그 제의 담론을 지배하는 약호로 해석할 수 있다. 수로왕의 출생 제의의 기록에 「구지가」라는 노래가 실려 있다. 「구지가」라는 노래의 담론은 이러한 제의 담론의 지배를 받는데, 이 또한 「구지가」 텍스트를 통해 약호로서 해석된다.

4) Walter A. Koch, *Evolutionary Cultural Semiotics: Essays on the Found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tegrated Cultural Studies*, trans. Susan Carter Vogel, Bochum: Studienverlag Dr. Nobert Brockmeyer, 1986, p. 10.

이렇게 보면, 「가락국기」의 담론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층의 담론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것은 언어 텍스트로서 드러난다. 의미의 망을 확대하고, 담론의 층을 보다 넓힌다면, 「삼국유사」라는 한정된 언어 텍스트 넘어서 존재하는 맥락들이 이러한 「삼국유사」의 의미 생성에 관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삼국유사」 넘어서 존재하는 맥락은 「삼국유사」를 지배하는 약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삼국유사」라는 보이는 상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상징의 어떤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텍스트를 넘어서실 때, 우리는 그것과 어떤 약호적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수많은 현실의 맥락이 존재함을 본다. 그것은 이미 구성된 텍스트가 아닌 구성되어야 할 텍스트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의 잠재성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상징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상징된 어떤 것이다.

「삼국유사」를 읽으며, 우리는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존재함을 느낀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삼국유사」 텍스트 바깥에서 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페르트가 말한 '흰빛' 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물론 하나의 관념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

것은 텍스트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보이는 텍스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월성의 영역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텍스트로부터 약호를 기술해가는 과정의 꼬트머리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술 불가능한 것으로 방치해둘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그러한 영역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몇 가지 관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락국기」 담론의 의미 생성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는 보이지 않는 파송자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이며, 그 보이지 않는 파송자는 텍스트를 통해 해석된 주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2. 노래에서 제의로

「가락국기」에서 「구지가」는 마치 '축약된 상징'⁵⁾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것은 제의의 진행 속에서 핵심에 자리한다. 그 노래는 인간에 의해 불러진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신에 의해 명령된 것이었다. 노래를 기호라 할 때, 그 기호의 발신자는 인간이고 수신자는 신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노래를 하도록 명령한 신이 조종의 파송자로 존재한다. 결국 「구지가」는 신의 뜻에 따라 인간이 부른 노래다. 그것은 종교적 담론의 특성을 드러낸다. 종교적 담론은 그것이 비록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의 담론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성경도 하느님의 말씀이고, 무속의 본풀이도 신이 자신의 내력을 구술하는 이야기다. 인간은 이 경우 신의 대리자로서 그의 말을 전할 뿐이다. 「구지가」는 그러한 종교적 약호의 체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불러졌다.

5) Eric W. Rothenbuhler, *Ritual Communication: From Everyday Conversation to Mediated Ceremony*,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8, pp. 16~19 참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러한 상징적 노래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기호 작용을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거북'은 기호다. 그것은 호격으로 불려짐으로써,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의 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게다가 이 노래가 불려지는 공간은 '구지붕' 근처다. 「구지가」가 구지붕 근처에서 보이지 않는 신의 목소리의 명령에 의해 불려졌으며, 그래서 「구지가」의 발신자이면서 수신자는 신이다. 신은 바로 거북으로 표상되며, 그 거북은 노래하는 백성들 앞에 존재한다. 거북은 그런 의미에서 지표 기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북은 다른 한편으로 도상 기호이기도 하다. 거북이 머리를 드러내는 모습은 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구지붕이라는 이름도 거북이 엮드린 형상을 따라 이름 붙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신이 거북이라는 형태로 해석된 것은 도상 기호의 생산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언어화되어 표출됨으로써, 은유가 되었다. 이러한 은유적 담론은 「삼국유사」를 지배하는 하나의 약호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삼국유사」는 많은 부분 유사한 이야기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며(같은 약호의 지배를 받으며), 그러한 반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지가」는 일회적인 노래로 보이지 않는다. 「구지가」는 주술적 노래로서 주술적 제의가 행해지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다른 형태라 하더라도 「구지가」는 「삼국유사」의 「수로 부인」조에 있는 「해가」와 깊은 유사성을 갖는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녀를 빼앗은 죄 얼마나 클까

만일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이 노래가 불려진 상황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 어떤 행위, 즉 노래 부르는 행위를 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제의가 행해지는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주술적 의도로 불려진 노래가 「구지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북을 그 부름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제의적 상황이 벌어질 때, 관습적으로 '거북'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고, '거북'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상징 기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지가」의 이러한 기호 작용들은 「구지가」가 그것의 맥락과 맺는 어떤 관련성을 말해준다. 퍼스에 따르면 지표 기호는 '그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에 의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⁶⁾라 한다. 「구지가」에서의 거북은 현실 맥락 속에 어떤 존재(거북이라 불릴 수 있는)를 상징하면서, 또한 그것에 작용하는 기호다. 「구지가」는 어떤 대상에 관한 노래이며, 그 대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노래다. 거북은 도상 기호가 됨으로써, 현실 속에서 그것과 유사한 대상을 상징한다. 거북은 그러니까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아울러 그것에 어떤 작용을 한다. 「구지가」가 그것을 넘어서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거북이 상징 기호로 작용함으로써, 그러한 노래와 현실의 관계는 반복적으로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 상징 기호에는 일반적 유형이나 법칙이 작용하는데, 이 경우, 「구지가」와 그것이 불려진 현실 맥락과는 어떤 일반적 유형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 맥락은 「가락국기」 담론 속에서 텍스트화된 형태로 찾아질 수 있다. 「구지가」의 해석을 확충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Hartshorne & Weiss, eds., 앞의 책, 같은 쪽.

「구지가」에서 쓰인 돈호법과 명령법은 또한 「구지가」가 그 맥락과 갖는 강한 연관성을 드러낸다. 「거북아」에서 드러나는 부름의 형태는 이 노래의 담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한다. 그것이 특정한 수신자를 지명한다는 점에서, 이 노래의 목적이 단순한 표현 작용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임을 말해준다. 전달해야 할 분명한 내용이 명령법을 통해 전달된다. 그것은 상황의 변환을 촉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노래의 바깥의 맥락에서 포착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노래가 실천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실천적 역할은 힘을 바탕으로 한다. 힘이 노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흔히 종교적 상징은 단지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자발적인 힘, 즉 인간의 마음을 그 안에서 절대적인 것에 투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⁷⁾ 「구지가」가 단지 무엇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이루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 노래가 불려진 맥락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

「구지가」는 춤과 함께 불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지가」가 언어 기호라면 춤은 몸의 기호다. 「구지가」가 한역되어 전하므로, 그것이 갖는 율격적 특성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일단 한역된 노래의 형식만으로 볼 때, 그것이 음악적 율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율격은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의 질서의 문제다. 이는 야콥슨이 말한 시적 기능의 실현이다. 춤 역시 어떤 율동에 따른 몸놀림이다. 이는 동작 내지는 행위의 질서를 구현한다. 이는 시가 말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질서는 병행이나 반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와 춤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기호들은 한 차원 다른 메타 기호의 층위에 함께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지시적 기능을 넘어서 구현되는 언어의 세계이면서 행위의 세계다. 언어가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춤은 인간의 몸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의 융합은 인간의 전

7) Firth, 앞의 책, p. 49.

존재로서 구현되는 기호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이는 노래를 넘어 존재하는 세계다. 그것은 이를테면 '우주의 리듬'이라 할 만한 것이며, 마치 초월적인 어떤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구지가」라는 텍스트를 넘어선 맥락을 해석함으로써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노래 혹은 노래와 춤은 「가락국기」의 맥락에서 하나의 축약된 상징이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면서 아울러 어떤 힘을 갖는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모두 그것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어떤 약호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을 기술함으로써, 우리는 '상징된 것'의 기술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3. 제의에서 뮈토스로

「구지가」가 불러진 상황은 일종의 제의적 상황이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 언어와 함께 어떤 행위를 동반한다. 제의는 “행위자들에 의해 전적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형식적 행위들이나 발화들의 다소 불변적 연쇄들의 연행”⁸⁾이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이 있다. 먼저 제의는 행위와 말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보다는 행위가 주도적이다. 말과 행위가 연쇄를 이루며 전체적인 연행을 이루는 것이다. 「구지가」와 더불어 춤과 노래가 행해지고, 아울러 “산봉우리를 파서 흙을 집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인 성격을 가지며 불변적 연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제의가 지속적인 반복의 성격을 가짐을 말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그것은 지속적 형식으로 굳어진다. 그것은 제의가 퍼스가 말한 상징 기호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세계

8) Roy A. Rappaport,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24.

와 구분되는 시공을 전제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의는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틀이 제의의 과정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행위자들에 의해 전적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제의, 특히 종교적 제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제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그가 이미 있어온 어떤 관습이나 아니면 그것을 하게 하는 어떤 힘에 복종함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제의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혹 그가 어떤 새로운 제의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있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⁹⁾ 그것이 행해질 때 그것은 분명 어떤 약속이나 관습 혹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 것이지만, 그러한 강제성이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인간은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이 해독해야 할 기호지만, 기호치고는 매우 애매한 기호이며, 또 그것이 나타내는 현실에 인간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호보다는 상징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또한 그것은 제의가 어떤 힘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또 어떤 힘을 실현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제의는 어떤 힘의 조종을 받아 행해지며, 그러한 실행의 과정은 그 조종하는 힘의 의지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구지가」가 불러지면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구지봉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어떤 목소리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복종해야 할 어떤 힘의 상징이며, 이는 구지봉에 모인 사람들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있는데 나타나지는 않는 비밀의 양태를 띤다.¹¹⁾ 또한 그들의 행위 역시 그들에게는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상징이다. 그들의 행위는 단지 어떤 애매한 존재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행위가 갖는 의미

9) Rappaport, 앞의 책, p. 32.

10) Thomas A. Sebeok, ed., *Encyclopedic Dictionary of Semiotics: Tome 2*, Berlin—New York—Amsterdam: Mouton de Gruyter, 1986, p. 1028.

11) Groupe d'entrevernes, *Analyse sémiotique des textes*, Lyon: P. U. L., 1979, p. 43.

또한 그들에게는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것 역시 무엇인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나타나지는 않는 비밀의 양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행위가 갖는 목적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 행위는 단지 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유발한다. 그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그러면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추게 되리라”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행하는 제의가 갖는 힘을 말해준다.

「가락국기」에서 수로왕 출생의 사건과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제의라고 간주할 때, 이러한 행위는 단지 일회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먼저 문면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진 것은 3월 계유지일(戒浴之日)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유는 액을 덜기 위해 목욕을 하는 정기적인 정화 제의로서 그것이 행해지는 날, 수로왕의 출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왕의 출생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다름아닌 왕 그 자신에 의해 기획된 것이다. 왕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왕의 말에 따라 그 제의를 행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러한 왕을 현실에서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제의의 비롯됨이 보이지 않는 왕, 즉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제의의 이룩함 또한 그것을 향한 것이다. 따라서 「가락국기」에서의 출생 제의는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비밀) 왕으로 하여금 ‘있는 것이 나타나’ (진실) 왕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 것이다.¹²⁾ 그리고 그것은 또한 보이지 않는 조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의의 비롯됨과 이룩함이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의라는 일련의 상징적 행위를 지배하는 ‘절대적’ 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즉 인간에 의해 쉽사리 해석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을 갖는다. 그것은 마치 초월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출생 제의의 기록에는 그가 “앞으로 임금이 될 어

12) Groupe d'entrevemes, 앞의 책, 같은 쪽.

면 존재”로 “하늘의 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락국기」 전체 텍스트 혹은 『삼국유사』 전체 텍스트에서 보면 이러한 초월성의 영역은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어떤 상징처럼 나타나고 있으며, 『삼국유사』 텍스트 너머에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

「구지가」가 갖는 상징의 힘은 이러한 제의로부터 온 것이다. 제의의 실행에서 절대적인 보이지 않는 힘은 「구지가」에 작용한다. 「구지가」는 텍스트로서 제의로부터 오는 힘을 실행한다. 뿐만 아니라, 제의에 미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실행시키기도 한다. 그런 것처럼 제의는 또한 제의 나름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마치 앞서 그림처럼 겹쳐진 여러 겹의 틀을 만들어내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제의가 실행하는 상징적 힘의 근원을 우리는 제의를 넘어 존재하는 또 다른 틀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가락국기」에는 수로왕 출생뿐만 아니라, 즉위·결혼·투쟁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제의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수로왕이 출생하는 순간을 「가락국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얼마 후 우러리 하늘을 보니,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늘어져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황금색 알이 여섯 개 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랍고 기뻐서 백 번 절했다.

제의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하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호다. 이미 하늘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의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는 명령을 내린 존재로 사람들에게 전달된 바 있다. 이때의 하늘은 절대성 혹은 초월성의 상징이다. 그것은 관습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퍼스가 말한 상징 기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늘은 때때로 그의 힘을 드러내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힘이 현시된 현실을 하나의 기호로 해석한다.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는 신성 징표들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영향을 미쳐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표 기호로 보인다. 하늘에서 알이 내려오는 과정은 자주색 줄, 붉은 보자기나 금합과 같은 제의적 도구를 통해서라는 점에서 상징 기호로 해석될 수 있다. '알' 역시 사람들에게 기호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신성한 존재를 담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지표 기호이며, 그것의 모양이 해처럼 둥글어 그들이 관념하는 신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본다면 도상 기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에 대한 해석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국가 시조의 신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므로, 그것이 신성한 것의 한 징표로 관습화된 상징 기호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여기서 붉은색이나 황금색 역시 그것이 신성한 것을 나타내는 관습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상징 기호라 할 수 있다(『가락국기』에 수로가 허황후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배 한 척이 서남쪽 바다로부터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며 북쪽으로 향해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하늘과 알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통해 사람들은 ‘백 번 절하는’ 제의적 행위를 한다.

『가락국기』에는 수로왕 결혼 제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수로왕은 “나를 짝지어 왕후 삼음도 또한 하늘이 명할 것이니”라고 하여, 그의 결혼이 하늘이라는 초월적 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한다. 그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의해 기획된 일을 알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왕후를 맞이하는 행위를 한다.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수로왕과 왕후의 결혼에 이르는 제의적 절차라 할 수 있다. 허황후의 배를 맞이하면서 햇불을 올린다든지 나무로 된 키를 바로잡는다든지, 또 산 변두리에 장막을 설치하는 행위들은 결혼에 이르는 일종의 격식화된 행위들이다. 허황후가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폐백 삼아 산신에게 바치는 행위 역시 제의적 행위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햇불, 키, 장막, 비단 바지는 모두 신성한 것에 맞닿은 어떤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지표 기호들이며, 이러한 행위들이 이미 예정된 관습을 따른다는 점에서 상징 기호이기도 하다.

수로왕의 죽음 이후, 수로왕과 관련된 제의의 기록들은 제의가 갖는 반

복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그 아들 거등왕으로부터 9대손 구형왕까지 이 묘에 제를 지냈다. 매년 정월 3일, 7일, 8월 5일, 15일에 풍성하고 정결한 제전으로 제사 지냈는데, 대대로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러한 반복성은 제의가 지속적 형식의 복제 가능한 기호로서 상징 기호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을 가능하게 한 힘은 초월성의 영역에 존재하는데, 가령 '하늘'이나 '신'과 같이 지칭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비밀'의 양태를 보이지만, 때로는 그 힘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힘에 대한 복종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다음 기록들은 그러한 힘의 기호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영규 아간이 장군의 위세를 빌려 사당을 빼앗아 음사를 행하더니 단오날에 사당에 제사 지내던 중, 사당의 대들보가 까닭 없이 무너져 깔려 죽었다.

마침내 비단 석 자에 진영을 그려서 벽 위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켜서 지성으로 받들더니, 사흘도 채 안 되어 진영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 땅 위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 가량이 되었다. 장군은 너무 두려워서 그 사당으로 나아가 불사르고 즉시 수로왕의 직손인 규림을 불러 말했다.

또 도적들이 사당 안에 금과 옥이 많이 있다 하여 들어와 훔쳐가려 하였다. 처음에 왔을 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활에 살을 먹인 용사 한 사람이 사당 안으로부터 나와 화살을 사면으로 빗발처럼 쏘아 일고여덟 명을 죽이니 도적들이 달아났다. 며칠 후에 다시 오니 큰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길이는 서른 자가 넘고 눈빛은 번개 같았다. 사당 곁에서 나와 여덟아홉 명을 물어 죽이니,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엎어지면서 흩어졌다. 그러므

로 능원의 안팎에는 틀림없이 신물이 있어 보호하고 있음을 알겠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기호들이다. 제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법도를 요구한다. 그것을 요구하는 주체는 인간들에게 이러한 기호를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한 기호들은 그 힘을 드러냄으로써,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그것은 제의라는 격식화된 행위의 그 격식성에 대한 것이다. 제의는 그 제의적 성격이 인간뿐 아니라, 초월성의 영역에 있는 보이지 않은 어떤 존재에 의해 보호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모두 그것이 어떤 신성한 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표 기호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로왕을 사모하는 놀이의 기록이 「가락국기」에 실려 있다. 이는 매년 7월 29일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술과 음식을 들며 허왕후가 배를 타고 온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이러한 제의는 일련의 실제 행위에 대한 모방 행위로서 여기에는 기호 해석과 함께 새로운 약호의 생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수로왕의 행적을 기린다는 점에서 지표 기호이고, 그 행적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도상 기호이며, 그것을 관습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상징 기호다.

지금까지 살핀 「가락국기」에 기록된 제의들은 「가락국기」에서 일종의 축약된 상징의 역할을 한다. 그 안에는 다양한 기호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의의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 제의를 '정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 하기도 한다.¹³⁾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특성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갖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격식화됨으로써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격식을 유지하는 힘을 어디선가 끌어온다는 점에서 그것은 메시지 외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것은 어떤 상징으로 존재한다. 상징하는 것이 유지

13) Rothenbuhler, 앞의 책, pp. 22~23.

될 수 있는 힘은 상징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초월성의 영역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가락국기」 혹은 「삼국유사」를 읽을 때, 마치 흰빛처럼 텍스트를 관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어떤 관념으로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우리는 제의를 둘러싼 또 하나의 틀, 즉 「가락국기」라는 뮈토스를 통해 그것을 더듬어볼 뿐이다.

4. 뮈토스에서 로고스로

「가락국기」는 뮈토스의 기록이다. 뮈토스는 로고스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전승된 이야기를 말한다. 호머와 헤시오도스의 뮈토스로부터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의 로고스로의 전환은 상징적 담론에서 이성적 담론으로, 신인 동형론에서 추상화로, 종교에서 철학으로의 전환으로 간주된다.¹⁴⁾ 뮈토스에는 그것을 전승케 하는 힘이 존재한다. 『오디세이』에 대한 연구에서 마틴은 뮈토스의 개념을 “믿어지고 복종되는 어떤 것으로 그 자체를 표상하는 힘과 권위를 주장하는 담론”¹⁵⁾이라 하였듯, 그것은 강력한 남성적 담론으로 존재한다. 이에 비하면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지적처럼,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이성적 논의, 계산, 선택이며, 말과 사고와 행위에 표출된 합리성”을 말한다.¹⁶⁾ 뮈토스에서 그것을 전승케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이야기 자체의 내재적 논리와 관계없이 담론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담론 밖의 지시물은 개념화되거나 형상화된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다.

『삼국유사』를 읽으면, 이러한 뮈토스들이 반복 기술됨을 볼 수 있다. 그

14) Bruce Lincoln, *Theorizing Myth: Narrative, Ideology, and Scholarship*,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p. 3.

15) 위의 책, p. 17.

16) 위의 책, p. 18.

것은 하나의 유형적 이야기처럼 나타난다. 우리는 가령 이를 국조 신화와 같이 범주화해서 말한다. 수로의 이야기는 단군·주몽·혁거세·탈해·알지의 이야기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 복제되는 상징 기호처럼 보인다. 이들 이야기는 시조의 출생과 죽음을 말하며,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의 건국과 쇠망에 대해 말한다. 『삼국유사』의 「기이」 편은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락국기」가 보여주듯, 제의의 담론을 포함하거나 함축한다. 이는 뮈토스가 제의와 갖는 기호학적 관련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문화 영웅으로서의 시조는 한 국가를 나타내는 기호다. 국조 신화는 그 시조의 비롯됨의 신성함을 통해 그 국가의 비롯됨의 신성함을 말하려 한다. 그는 그가 세운 국가의 지표 기호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의 삶은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다른 유표성을 갖는다. 그 유표성은 뮈토스의 진행 속에서 드러난다. 「가락국기」에서 그것은 제의의 담론으로 나타난다. 수로의 삶은 제의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출생·투쟁·결혼·죽음이 모두 이러한 제의로 유표화되어 기술된다. 이는 삶의 각 단계를 유표화시키면서 의미화한다. 수로는 물리적 시간에 휩쓸린 삶이 아닌 그것을 질서화하는 힘을 갖는 삶을 산다. 이는 다름아닌 뮈토스의 힘으로부터 온 것이다.

뮈토스는 어떤 목적론적 과정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 가치를 갖는다. 「가락국기」는 가락국의 건국·쇠망과 같은 역사적 흐름을 기술하지만, 그 흐름의 기저에 그것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파송자가 존재한다. 그는 제의의 과정을 조종하며, 그것의 의미를 생산해낸다. 앞서 말했듯, 제의를 상징이라 할 때, 바로 그 상징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의의 과정이 뮈토스를 통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뮈토스라는 틀이 하나의 약호로서 제의의 과정을 지배하여 상징을 산출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러한 제의를 유지시킨 것이 인간의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을 받치는 뮈토스의 역할에 주목할 수도 있다. 뮈토스가 제의를 떠받치는 것처럼, 제의 역시 뮈토스로 기술되어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말은 행위의 보이지 않은 조종자이며, 또한 행위는 말의 보이지 않는 조종자다. 「가락국기」의 뫼토스는 제의를 단지 종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뫼토스적인 신념에 의해 기술한다. 그것은 제의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의 약화를 함축한다. 한편으로 뫼토스는 또한 그렇게 기술될 수밖에 없는 목적론적 과정을 그 담론의 밖에 존재하는 제의의 기호로부터 이끌어올 수 있다. 이는 뫼토스와 제의의 기호가 갖는 순환적 관련성을 말한다. 뫼토스와 제의는 서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반성한다. 말과 행위는 서로 간의 확충을 통해 메타 담론을 산출한다.

『삼국유사』의 「기이」 편은 뫼토스를 기록했으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에 말에서 글로의 전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에는 말에 대한 반성이 함축된다. 뫼토스는 기록되면서, 뫼토스적 성격과 함께 로고스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그것은 일연에게 믿어진 이야기지만, 그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유추의 과정을 통해 추론된 믿음이다. 『삼국유사』의 「기이」 편 서문에 보면 그러한 과정이 드러난다.

서술해 말한다. 대저 옛날 성인이 예약으로써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써 가르침을 베풀 때, 궤이한 힘이나 난잡한 신은 말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을 안고 도록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다른 점이 있었다.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허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옴으로써 성인이 나온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를 에워싸서 복희를 낳았으며, 황아가 공상 뜰에서 놀다가, 스스로 백제의 아들이라는 신동과 사귀어 소호를 낳았고, 간적은 알을 삼켜 설을 낳았으며, 강원은 거인의 발 자취를 밟아 기를 낳았고, 요는 잉태된 지 14개월 만에 태어났으며, 패공은 그 어미가 큰 못에서 용과 교접하여 태어났다. 이 밖의 일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으라!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태서 출생했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랴. 신이로써 다른 편보다 앞에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문은 「기이」 편의 뮈토스들을 지배하는 약호를 보여준다. 뮈토스는 이로써 「기이」 편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뮈토스가 보이는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은 로고스적 형태로 전환한다. 글로 전환되면서, 그리고 서문이라는 격식으로 약호화되면서, 뮈토스가 갖는 힘은 중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은 그것이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의 복제된 상징 기호들로 기술된다. 결국 『삼국유사』의 「기이」 편에 나타난 여러 비슷한 국조 신화들은 또한 중국의 뮈토스의 반복으로 기호화되는 것이다. 노래와 춤, 그리고 제의와 말에서 궁극적으로 글로 된 텍스트로 정착되면서, 텍스트는 더욱더 상징 기호의 약속된 틀 속에서 의미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삼국유사』의 후반부, 즉 「홍법」 편 이후의 담론들은 힘이 아닌 인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이」 편의 담론과 많이 다르다. 『삼국유사』의 담론은 이러한 대립적인 기호, 다시 말해 힘의 기호와 인식의 기호를 병행한다. 힘에 복종하는 믿음의 인간과 삶에 대해 회의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는 인간이 함께 존재한다. 그럼으로써, 「가락국기」에서의 힘의 담론은 한번 더 로고스의 세계 그리고 역사의 세계로 귀환하는 듯이 보인다.

5. 약호를 넘어서

「구지가」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힘의 노래다. 그 힘은 그것이 불려진 제의로부터 온다. 제의는 약호화되어 「구지가」를 지배한다. 「구지가」는 그 약호 속에 존재하며 그것의 힘도 그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제의라는 담론으로 포착되는 것이다. 제의 역시 실천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의 힘

은 그것을 기술한 뤼토스로부터 온다. 그것은 뤼토스로 약호화된 것이며, 그것 역시 텍스트로 존재한다. 여기서 텍스트는 『삼국유사』라는 책의 담론이다.

우리는 이들 담론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여러 기호 작용들을 기술해왔다. 퍼스가 말한 도상 기호·지표 기호·상징 기호 등이 이들 담론들 간의 관련성을 말해준다. 대상과 유사하게 가깝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술됨으로써 이들 담론이 현실을 향해 열린 해석 담론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들 담론들은 격식화된 노래·행위·말·글을 보임으로써 무엇보다도 상징 기호임을 보인다. 그것은 약호화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추론한다. 『삼국유사』라는 기호계 속에서 이들은 담론적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거친 뤼토스를 로고스로 중화시킨다.

이제 이러한 텍스트의 세계에서 한 걸음 나가보자. 『삼국유사』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또 다른 틀을 만들어 그것을 약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맥락이든 약호화할 수 있으며, 텍스트화할 수 있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은 기호이면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틀로서 모든 것이 규정될 수 있을까.

상징은 그것이 상징하는 현실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⁷⁾ 그것은 상징으로서 추론된 약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이미 추론되기 이전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퍼스가 말한 역동적 대상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구지가」가 그것을 둘러싼 제의의 약호의 지배를 받지만, 텍스트 바깥에서 흘러온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제의 역시 뤼토스의 지배를 받지만, 또한 텍스트 바깥에서 흘러온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지배를 받음을 말한다. 그것은 『삼국유사』라는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있되 나타나지 않는 비밀의 양태를 보인다. 텍스트

17) Sebeok, ed., 앞의 책, 같은 쪽.

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주체가 있다면 텍스트 바깥에는 있지만 나타나지는 않는 파송자가 있다. 그것이 있기에 상징은 단지 상징 기호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며, 마치 페르트가 말한 흰빛과도 같은 것이다.

「가락국기」를 읽으며, 또 『삼국유사』를 읽으며, 텍스트의 약호 넘어서 어떤 잉여적인 것들이 담론에 흩뿌려져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환원시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텍스트의 약호를 기술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아울러 그것 바깥에 존재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인식할 때, 그것은 나의 담론에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지시물이 없는 기호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상징' 혹은 초월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The Semiotics of Transcendence:
A Reading of Ka-rak-kuk-ki(The Story of Ka-rak)
from the *Sam-kuk-yu-sa* (The Stories of Three Kingdoms)

Song Hyo-Sup

On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process of signification found in Ka-rak-kuk-ki. One part of Ka-rak-kuk-ki concerns ritual and, in that part, there is a song named Ku-chi-ka(The Tortoise Song). Therefore, we can interpret Ku-chi-ka within the frame of ritual, ritual within the frame of Ka-rak-kuk-ki and Ka-rak-kuk-ki within the frame of Sam-kuk-yu-sa. In this process, we can show how one code produces another code in the text.

However, we can postulate another region beyond this codification that I call "Transcendence." This has the power to affect the signification of the text. It is not decoded easily, so it seems to be disseminated throughout the text. Another purpose of this paper is, by revealing that dissemination, to show that Ka-rak-kuk-ki is a symbolic discourse that can not be interpreted completely.